

## 안동권씨종보 편집 및 1100년 편찬 회의 개최

## 재단법인 안동권씨 능동장학회 이사회 개최

내년, 능동장학회 대총회로 이관 예정



안동권씨종보 편집회의와 안동권씨 1100년 편찬 문제에 대한 회의가 10월 17일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대중회 3층 회의실에서 권갑현 편집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중달 종사연구위원장, 권영섭 화백, 권해조 전 장군, 권기탁 편집위원, 권인호 대전대 명예교수,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사장, 권오달 편집위원,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갑현 편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신임 권영철 대중회 회장이 취임하고 처음 개최하는 편집회의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대중회 회장께서 종보 구독자를 1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족친들이 종보를 보게 하려면 뭔가 읽을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보가 보다 알찬 내용으로 한층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취재에서부터 기사 작성과 최종 편집까지 종보 편집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현재 5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된 종보는 창간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보관하고 있고, pdf 파일은 안동권씨 대중회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18년 1월 직영체제로 전환하

여 종보내기 운동 등 종보 확장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어서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먼저 종보 편집 문제이다. 권기탁 편집위원은 외부인이 광고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중달 종사연구위원장은 신문 기사의 문장 자체가 너무 고풍적이어서 일반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현대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원고료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다른 성씨와 소통하고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원고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더해서 40대 이하 젊은 필자를 개발하여 아들, 손자까지 넓혀 가는 릴레이 바톤 터치 식으로 세대교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조 전 장군은 고정칼럼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초청 인사와 외국인에게 칼럼을 할당하는 수시 칼럼 제도, 안동권문의 문인 등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 등 종보를 좀 더 색다르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사장은 현재 종이신문 구독자는 실버 중심이다. 젊은 이들은 뉴미디어를 선호한다. 신문은 구

독자가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신문물 접하게 되면 뭔가 이득이 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 젊은이들에게 채널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권영섭 화백은 지금 종보는 원고정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원고료가 문제다.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화할 필요도 있고, 젊은 층도 볼 수 있게 미디어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갑현 편집위원장은 재외동포에게도 칼럼을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에는 종보 부수 확대 방안 의제를 다루었다. 권중달 종사연구위원장은 각종종과 지파 회장에게 전화로 구독 요청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 종보 지면이 산뜻하고 읽을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조 전 장군은 각 종파별로 할당제로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사장은 종종별로 할당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며, 권오달 편집위원은 지금 우리 집안 30세 선조를 기준으로 소문종 명단을 만들어 전화번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안동권씨 1100년 편찬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이어졌다. 권갑현 종보편집위원장은 먼저 제가 안동권씨 1100년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종보편집위원을 안동권씨 1100년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전원 동의했다.

권중달 종사연구위원장은 현재 한국 역사학은 중국에 편도된 상황이다. 고려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국사 교육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프레임에 갇혀 있다. 단일민족과 국수주의에 갇혀 있다. 빨리 깨어나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금태조 문제는 한국 역사학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자 안동권문에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의 역사 강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원고료가 문제인데, 이는 금태조 연구 문제를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개발하고 연구 계획을 잘 수립하여 뜻있는 독자가나 문중에 협조를 요청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안동권씨 종보사 이름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우리 선조 중에는 현대적으로 조명할 분이 너무나 많다. 특히 양촌 권근 선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빨리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인호 대전대 명예교수는 금태조 아골타 문제는 1100년 편찬 사업에 꼭 들어가야 한다. 한국 역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달 편집위원은 책을 만들어도 읽혀질까 걱정이다.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 차세대와 다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동영상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갑현 편집위원장은 올해가 권기 1094년이다. 6년 후 2029년은 안동권씨 1100년 편찬 사업은 5년 안에 완료해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빠른 시일내에 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영훈 감사, 권영철 회장, 권중달 이사장, 권경석 이사, 권봉도 이사(왼쪽부터)

능동장학회(이사장 권중달) 이사회가 10월 24일(화) 12시 서초구 서초대로346에 위치한 서석대 식당에서 권중달 이사장, 권영철 대중회 회장, 권경석 이사, 권봉도 이사, 권영훈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능동장학회를 대총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먼저 권영훈 감사가 결산보고를 하고, 권중달 이사장은 권오성 이사가 임기 만료로 사임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권영철 대중회 회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

한다고 말하며, 절차에 따라 현 능동장학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에 이번엔 불참한 권영철 이사와 능동장학회 설립자 권승렬 전 법무부장관의 자제인 권정선 이사가 등 능동장학회 이사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다음 이사회를 개최하여 권영철 대중회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단 능동장학회 서류는 대총회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 2023年 11月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b>&lt;찬조금&gt;</b>			
권영성 고문	1,000,000	권영복 고문	1,000,000
권영한 고문	1,000,000		

<b>&lt;임원회비&gt;</b>			
<b>부회장</b>			
권세목 상임부회장(의성)	1,000,000	권기훈(문경)	1,000,000
권병돈 상임위원(경기광명)	1,000,000	권순구 상임위원(원주)	1,000,000

<b>이사</b>			
권명달(울산)	300,000	권영봉(김해)	300,000
권해호(부산)	600,000	권오실(서울강동)	300,000
권순창(안동)	300,000	권기성(안동)	300,000
권정택(상주)	300,000		

<b>종무원</b>			
권병선(서울동대문)	200,000	권병호(원주)	200,000

합계 : 9,8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고려왕조 건국주 태사주

# 太師酒

# 太師酒

인용소주 35%



주문전화 : 054-857-0106

DISTILLED BY ANDONG DISTILLERY